



주빌리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March 2024, 제16호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열매 맺는 사순절

사순절이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도 참된 회개와 구별된 삶을 위해 금식하며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절에는 세례를 베풀며 신앙의 가족들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전통을 갖기도 했습니다.



금식과 절제는 신앙 성장과 회개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사정상 금식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미디어 금식이나 절제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영화, 유튜브, SNS 이용하는 시간 줄여서 말씀보고 기도하는 시간 늘이는 것 사순절에 고려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사순절에 뭔가 자제하고 금하는 소극적 방향으로 경건생활을 하는 대신, 친절이나 선행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혹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만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사람 용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요.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밖에 평소에 관심 없었던 일이나 사람에 관심 갖기도 좋은 예일 것입니다.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거나 몸이 아픈 사람 찾아가서 잠시라도 곁에 있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 피해자들과 뉴욕 난민, 그리고 어려움 당한 주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 맺는 금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 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사야 58:11)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거라고 약속하셨으니 희생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FOCUS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 품금 품고 이민 온 사람, 강명식장로

300초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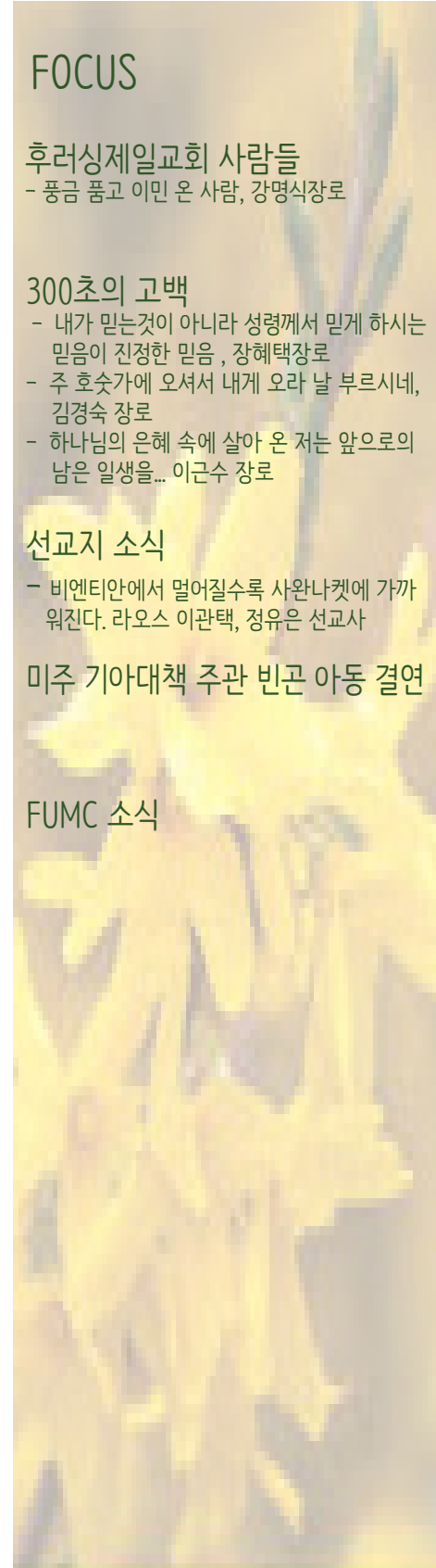
- 내가 믿는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장혜택장로
- 주 호숫가에 오셔서 내게 오라 날 부르시네, 김경숙 장로
-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온 저는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이근수 장로

선교지 소식

- 비엔티안에서 멀어질수록 사완나켓에 가까워진다. 라오스 이관택, 정유은 선교사

미주 기아대책 주관 빈곤 아동 결연

FUMC 소식



후러싱제일교회 사람들

풍금 품고 이민 온 사람

강명식 장로



◇ 차남 결혼식에서. 장남 부부와 손주들, 한국에서 온 딸도 함께

강명식 장로님은 1939년생이다. 일제 시대와 해방, 6.25를 지나며 굴곡의 한국 근현대사를 겪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만 해도 몇 개를 거쳤는지 모른다. 고향인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서 국민학교 1학년이 입학한 것은 3월. 학교에 가니 일본말만 쓰게 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8월에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어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해방이 되어 서울에 와서도 전학을 두어번 하다가 다시 고향의 국민학교로 돌아와 6.25를 맞았다. 7남매 중 형과 누나들은 모두 피난을 가고, 장로님과 그 아래 여동생만 고향에 남아 전쟁을 겪었다. 어머니는 그 전란 속에서도 집안의 물건을, 심지어는 손가락에 끼고 애지중지 여기시던 금가락지까지 팔아가며 자식들 교육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 덕분에 장로님과 형제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모두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장로님은 선대로부터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할아버지 때부터 건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가정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언더우드 목사가 예산을 방문하였다가 강 장로님 댁에 들린 적이 있었다. 강 장로님 댁의 언덕, 양지바른 밭을 보고 여기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바로 그 밭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인이라고는 강 장로님댁 일가가 거의 전부였던 고덕감리교회의 시작이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이 교회 절기가 되면, 강 장로님네 7남매와 사촌들, 친구들이 모여 찬양도 하고 성극도 하고 즐겁게 지내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강 장로님이 평생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유물, 엄밀히 말하면 고덕감리교회의 유산이 있다. 바로 아버님이 교회에 바치셨던 풍금이다. 누나가 배워 교회에서 찬양할 때마다 치던, 풍금. 세상이 발전하고 피아노에 밀려 나중에는 집안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풍금. 강 장로님에게 이 풍금은 어린 시절 예배와 교회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던 단순한 악기에 그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세우고 집안 대대로 섬긴 교회를 통해 장로님 평생의 삶에 각인된 기독교 신앙, 그 신앙을 담지하고 상징하는 물건이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페달 뒤의 바람통이 삭아서 못쓰게 되자, 장로님은 남대문 양키시장에 가서 미제 판초를 사다가 바람통을 직접 만들어 접착제로 붙였다. 장로님이 부품을 다 분해해서 마루에 온통 늘어놓고 재조립하여 다시 쓸모있게 만든 그 풍금은 미국 이민집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히 싸여 같이 미국에 들어왔다. 지금은 시카고에 사는 큰 아들 집에 물려주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기독교 신앙과 함께.

강 장로님은 광계향 권사님과 사이에서 딸 민선과 아들 환석, 환준을 두고 있다. 장로님의 5촌 당숙되시는 분이 광 권사님의 이모부와 친구셨다. 두 분 소개로 만나 결혼하면서, 광계향 권사님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광 권사님은 그야말로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스님들의 법의인 가사를 지어 절에 바치고, 논산의 은진미륵에다가 들렀던 실로 옷을 지어 입으면 명이 길다는 말을 듣고 옷을 지어입는 집안이었다. 광 권사님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무엇보다 온갖 제례로부터 자유로워진 해방감과 편한 삶의 방식에 기뻐했다고 한다. 그리고 평생 강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교



◇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에 아버지가 헌납한 풍금

회를 섬기며 깊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왔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주었다.

1987년은 이 가정에 새로운 장이 펼쳐진 해이다. 먼저 미국으로 이민 온 형님들과 누나들을 따라 강 장로님 가정도 미국으로 이주를 한 것이다. 당시 이미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고,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남자친구도 있었던 딸 민선을 서둘러 결혼시키고, 고3이던 큰 아들 환석과 국민학교 6학년이던 환준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다. 7월초에 이민 오자마자 7월 둘째 주일부터 형님 내외분이 다니시던 후러싱제일교회에 출석하였다. 교회에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교인들 간에 싸움이 나서 잠시 다른 교회에 간 적은 있지만, 곧 다시 후러싱제일교회로 돌아와 이후 35년 넘게 후러싱제일교회 교인으로 살아왔다.

이민 후, 아이들은 적응도 빨리 하고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어 자녀 문제는 전혀 없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전부터 잘 알던 분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어, 처음 건축개발을 하다가 땅을 사게 되었다. 프란시스 루이스 블러바드와 32 에브뉴 사이의 샤피몰 땅 일부를 샀는데, 갑자기 뉴욕시로부터 그 전체 땅에 대한 세금, 8만2천불을 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를 받았다. 여기 저기 관련 부서도 쫓아가 보고, 변호사들도 많이 만났다. 돈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이 비용대로 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변호사마다 말도 다 달랐다. 시에서 오류를 인정하고 변경해줄리가 없으니 그냥 포기하라는 변호사도 있었다. 미국법을 몰라 너무 힘이 들었다.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이 없었다. 매일 새벽예배에 가서 강단 계단에 엎드려 그 통지서와 땅 관련 서류를 들고 기도를 하였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매어달렸다. 우리 땅도 아닌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하지만 세금내는 날짜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주변에 돈을 빌려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2달 쯤 했을까, 강 장로님은 기도 중에 누군가가 장로님을 꼬옥 껴안아 주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체감과 함께. 놀라서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다음날 뉴욕시에서 착오였다고, 잘

못을 인정하는 편지와 함께 8만 2천불짜리 환불수표가 날아왔다.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장로님은 누군가가 꼭 껴안아 주던 그 느낌이 생생하다고 한다.

그런 어려움을 겪다보니, 땅을 사고 팔거나 건축개발하는 일에 정이 떨어졌다. 그 일을 접고 세탁업을 시작하였다.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다. 세탁소를 하면서 여러 일을 겪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기뻐던 일이 두어가지 있다. 하나는, 어느 중년부인이 가지고 온 옷속에서 600불이 넘는 돈을 발견하고는 옷을 찾으러 왔을 때 돈을 돌려드린 일이다. 돈을 돌려드리자 그 손님은 놀라워하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고는 이후 아주 친한 단골 손님이 되었다. 두번째로는 어느 남루한 손님의 빨래를 한 일이다. 말 그대로 거지같다고 할 정도로 초라한 할아버지가 더럽고 냄새가 몹시 나는 옷가지를 맡긴 적이 있었다. 냄새가 빠질 것 같지도 않고 흠도 많이 묻어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마저 묻어 있었다.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빨래감이었다. 차마 다른 옷들과 함께 빨 수도 없고 보통 빨래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았다. 물에 담가 장로님이 직접 손빨래를 하였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빨래를 되풀이 하다 보니, 어느새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빨지 말고 그냥 묶어두었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그대로 돌려주라 했던 옷들을 잘 빨아 그 손님에게 직접 내어주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흐뭇할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장로님이 나이가 들어 건강 때문에 세탁소를 그만두게 될 때까지 가장 행복한 일로 기억에 남았다.

강명식 장로님과 광계향 권사님에게 후러싱제일교회는 이민의 삶 내내 함께 살아온 역사 그 자체이다. 예배를 드릴 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인들이 좌석 통로에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일,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본당 입구 부분을 늘리는 증축공사를 하던 일, 그리고도 모자라 1, 2부로 예배를 나누어 보기까지 하던 일, 여선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일, 교회가 부흥되어 또 3부예배까지 드리게 된 일 등, 이 모든 교회의 변화를 함께 겪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 여쭙어 보니, 장로님은

2010년 전국지도자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연 일과, 매년 엘리펀드 공원에서 드리던 야외예배를 꼽았다. 우리 교회는 2010년 전국 한인감리교회 대표들이 모여 대대적으로 한인감리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일에 주최장소로 선정되었다. 미 전역의 한인감리교회 대표들과 그 가족들, 약 500명의 참석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광계향 권사님은 마침 총어선교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행사 내내 손님들 식사를 잘 대접할 수 있도록 각 여선교회를 지휘하는 책임을 졌다. 대회가 열리는 3박 4일 동안, 참석자들이 회의를 잘 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이 즐거이 지낼 수 있도록 전 교인이 힘을 합쳐 등록부터 시작해서 숙박, 이동, 식사, 회의, 행사 프로그램에 전반적인 손과 발이 되었다. 누구 하나 힘들다 불평하는 일이 없었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온 가족이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땀을 흘리는 가정도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대거 합세하여 온 교회가 대회 준비와 손님 접대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오신 손님들도 흡족하고 고마워했지만, 무엇보다도 대회를 치른 우리 교인 자신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후러싱제일교회의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장로님은 당시 프로그램 바인더도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 야외예배 여흥시간에 여장을 한 장로님

매년 엘리펀드 공원에서 열리던 야외예배는 푸른 공원에서 각 구역이 싸온 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온 교인이 함께 어우러지던 잔치자리였다. 평소 볼 수 없었던 교인들의 다양한 재능과 숨은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한번은 강 장로님이 장기자랑에 나간 적이 있다. 장로님 팀에서는 남자가 드레스 입고 여장을 하고 여자

가 양복 입은 남장을 해서 웨딩마치를 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준비된 여자 드레스가 날씬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 그 드레스를 입을 몸매(?)를 갖춘 남자가 강 장로님 밖에 없었다. 결국 그 날, 장로님은 날씬한 드레스에 예쁜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나서서 전 교인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한동안 코비드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다가 다시 예배도 드리고 교인들과 교제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교회에 오곤 했는데, 두어해 전 광계향 권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친 이후로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게 되었다. 두 분은 올해에는 강 권사님의 허리가 꼭 나아서 사랑하는 교회에 다시 출석하기를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있다. 강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장점으로 각 남녀선교회가 사랑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것과 각각은 사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손길들이 많다는 점을 뽑았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우리 후러싱제일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있으셔서 지금껏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왔고 또 지금도 굳건히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성장하여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히고 이기는 교회가 되고, 뉴욕 사회 일원에서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더욱 성숙하기를 바란다는 두 분. 이민길을 떠나며 선대의 교회 사랑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풍금을 소중히 들고 온 장로님 가정처럼, 대를 이어가는 교회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하게 느껴졌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 인터뷰를 마칠 때 짚, 강명식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강조한 말이다.



◇ 연애시절의 장로님 내외분

300초의 고백

내가 믿는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

저는 목회자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나 무척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생활 능력이 전혀 불가능했던것은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복교회와 한얼산 기도원을 세우신 이천석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꼭 목회자의 길만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도 드러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수 있을까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사주가 저의 외숙부여서 낙하산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 안하무인 이였습니다.

관리부에 근무하다가 영업부로 옮기면서 남다른 제 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움을 하거나 도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가무에 탁월한 재능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고 사람 사귀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소위 술상무 역할이었지요.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실패를 하였지요.

그 후 남미 칠레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별 재미를 못 보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제가 미국오기전에 LA 은혜교회에서 (당시 김광식 목사님시무) 뜨레스 디아스 라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뜨레스 디아스 15기 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삼일간 집회를 하고 목요일 내려왔는데 모두 은혜충만 하였지만 웬지 나만 밋밋하여 기쁘지도 즐겁지도 않았는데 금요일 철야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식 선교사님 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인도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안수 시간이였습니다. 앞자리 부터 안수가 시작되고 나는 뒤쪽에 있었는데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혜택 장로



전도사님이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실때 나의 가슴에 불같은 뜨거움이 활황타오르고 있었고 아주 강렬한 빛이 내 입으

로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피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하면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대굴 대굴 굴렀지요.

한 30분정도 지난 후 전도사님이 다시 안수하여 진정 시키시고 그 밤을 철야기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억지로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더니 이제는 안 믿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이거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였지만 내입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합니까? 이 후로 부터는 나는 자신있게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도 자신있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어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체험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 보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집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 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도록 합시다.

주 호숫가에 오셔서 내게 오라 날 부르시네

김경숙 장로



저에게는 믿음이 좋으신 온순한 성품의 어머니와 노래를 아주 잘 하셨던 낙천적인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7남매 중에서 넷째 쌍둥이 동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고 6.25 전쟁 후에 부산으로 피난갔다가 진해를 거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노래 잘하는 쌍둥이 자매로 뽑혀서 이중창을 부르러 다니던 때가 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교회에 자물통이 채워지고 마당 양쪽에 천막을 치더니 따로 갈라져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운다고 생각하니 너무 실망스러웠고 아픈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피난민들은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언제나 저희 집안에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님의 노래와 가족합창이 있어 즐거웠고 가난해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성실과 근면을 가훈으로 삼으신 아버님이 손수 쓰시고 액자에 담아 놓으신 말씀 “내 집은 비록 적으나 진실한 벗으로 삼고 가슴 가득히 채울 수 있다면 난 행복하다” 이 글을 마음에 품고 자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진해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온 후부터 집안은 더 어려워졌고 많은 식구들 매일 끼니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야간학교에 편입해 다녔지만 등록금을 못내서 두번씩 학교를 휴학하면서도 우리 쌍둥이 자매는 기죽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악착같이 공부했고 방과 후 합창부 연습이나 특별 활동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요일에는 잠 실컷 자고 쉬는 날이 되버려서 교회를 잘 나가지 못했는데 다행히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씩 예배 시간이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바로 대학은 못갔지만 언젠

가는 미국에 가리라 마음 먹고 부지런히 영어 회화를 배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6년이 지난 후에 간호대학에 들어간 지각생이었습니다.

1975년에 취업 이민으로 혼자 미국에 와서 일리노이 주 시골에 있는 작은 양로원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뉴욕으로 올라왔고 그 때쯤 남편도 뉴욕에 와서 합류하면서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간신히 뉴욕 간호사 면허증을 받고는 병원일을 시작했고 두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를 너무 좋아했지만 우리 부부는 많이 피곤했고 이민교회도 평은 치만은 없어서 서로 부딪히고 언성 높히고 다투는 일이 생기기니 또 실망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격주로 주일에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한 주 걸러서 빠지면 안되었고 밤일 끝내고 집에 오면 낮에는 잠을 좀 자야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애들을 어디에 맡길 형편도 안되어서 애들을 보면서 비몽사몽 간 낮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렇게 밤에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은퇴하기 까지 30년을 밤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일하고 나오는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잠 안자고 깨어있는 날이었고 교회에 가면 졸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가대며 여선교회로 맡겨진 책임을 다 하면서 성경공부나 교회 행사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저의 도리이고 예수님 잘 믿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속이 텅 빈듯 하면서도 저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채 지냈습니다.

저는 일찌기 여선교회와 연관되면서 선교역사를 배우고 지도자 훈련에 참석하며 배우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일 년 동안 계획된 모든 여선교회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 치르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분주하게 다녔고 연합감리교회 여성 평신도 사역자인 디크니스가 되기 위해서 다시 힘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맨하탄에 있던 여성국 본부에 기차타고 나가서 공부하고 내쉬빌에 있

는 스크린 센터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기간 합숙 훈련하면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때가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과 깨달음으로 믿음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곳의 조그만 채플에서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영 찬송가에 있는 “주 호숫가에 오셔서 내게 오라 날 부르시네 겸손히 주를 따르라 하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강하고 뜨거운 바람이 온 몸에 감싸이면서 성령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시는 듯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좀 겸손해지라고 깨우쳐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에도 가끔 이 찬송을 그냥 좋아서 불렀지만 그 날의 ‘겸손히 따르라 하네’ 라는 가사에 저는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자리였음을 깨달았고 주님께서 저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각성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한다고 했지만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 하면서 규칙적인 형식과 책임감으로 교회를 다니고 머리로만 믿었던 율법적인 열심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을 잊고 살아온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2004년 봄 디크니스로 임명받기 까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훈련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깨끗이 비워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할지 더욱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보잘 것 없는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고 불러주시심을 깨닫게 되니 그동안 교만함으로 인해 닫혔던 저의 마음과 기도의 입이 열리면서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건가? 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죽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병원에서 일할 때 그저 아픈 사람들을 정성으로 치료하며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는데 이 후로는 환자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도 뚜렷하게 달라지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아픔을 돌보는 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그들

의 영혼구원이 급선무 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동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말기환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고 조금이나마 편안하고 기쁜 얼굴로 천국가시도록 해드리는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갈급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거의 말은 못해도 들을 수는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원에는 밤에 방문자도 없고 조용했기 때문에 규칙 상 안되는 줄 알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예수님 얘기해드리고 찬송가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환자들은 얼굴 표정이나 그 모습이 평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편안하게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들을 간호하면서 제일 소중하고 감사했던 일은 늘 저한테 “주 호숫가에 오셔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네…” 를 불러드릴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후반기에서도 아주 짧게 남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전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웃에게 덕이 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 후러싱교회가 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찬송가운데 저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서 매일 제 마음을 노크하시며 들여다 보십니다. 저의 부족하고 미련함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온 저는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이근수 장로



저는 우리 나라가 해방되던 1945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 선생님이로 재직 중이셨는데 그때는 그곳이 이북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38선 이북으로 가서 업고 내려오셔서 남한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4살 때 큰어머니에게 입양이 되어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큰 아버지 집안에 자손이 없어서 큰어머니께서 저를 입양한 것이죠. 6.25 때 폭격을 당해 어머니와 4남매 중 막내인 동생이 숨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입양이 된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 어머니는 저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에 계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 외손주를 잘 키웠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북한에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왔습니다. 나라도 어수선하고 군대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가 경기도 파주군 병무과에 가서서 보충역으로 바꿔 주셔서 방위로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휴학을 했기 때문에 9월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한국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LG GROUP 기획 조정실에 특채되어 재무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덕분에 대리급 직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는 매월 회사 전무급 중역회의 때 각사에서 올라온 재무제표를 보고 필요한 재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LG 그룹 창업자 구인회 회장을 기념하는 연암문화재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인회 회장 사후 구자경 회장이 취임하자 재무 관련 자료를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업무 범위가 더 확장되었습니다. 월간 발행되는 Harvard Review에서 좋은 글 번역해 드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다니다 미국 공인회계사(AICPA)를 따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딸 아이가 한 살이던 1973년 7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표 사고 9월에 입학 할 학비를 내고 나니 수중에 300-400 달러 밖에 안남았습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 뉴욕타임즈 일요일 판 구인 광고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회계사를 모집하는 광고가 3-4페이지 정도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보냈지만 한 군데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LG 그룹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도 마쳤는데 미국에 오니 취업도 못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일년 먼저 유학 온 친구의 도움으로 Nursing Home 남자 간호 보조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남자 노인 10-15명을 돌보며, 방 청소를 하고, 샤워를 시키고 식사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팁을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팁이 없던 한국 문화에서만 살고 와서 처음에는 팁 받는 것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주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적응하고 배워가며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버스 요금이 \$0.25였고 가스 값이 1 달러도 안되었습니다. 한 주에 7-8달러의 소득이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Nursing Home에서 일을 하다가 ‘만일 내 부모님이 양로

원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소변을 청소하고 목욕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 면회를 오는데 가만 보니 아들들은 거의 오지 않고 전부 딸들만 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오는 경우에는 아들이 아니라 아내를 따라 온 사위였습니다. 7-8개월 근무 중한 필리핀 친구의 도움으로 Jewish 종교 기관에 Bookkeeper로 취직했습니다. 후에 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CPA LICENSE를 얻고 Accountant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옛 직장인 LG 그룹에 전무님 뵈러 찾아갔더니 구자경 회장을 만나고 가라고 하셔서 면담을 했습니다. 구자경 회장이 제게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전화하셔서 시국이 어수선하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CPA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발전하여 나중에 뉴욕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딸과 아들, 5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저희 딸은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Baby Sitter, 주일학교 교사 등을 하였습니다. 부부의사(소아과, 사위는 외과 의사)로 Houston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딸이 엄마에게 소아과 전공의가 끝났는데 마취과로 바꾸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다른 전문의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직업이 소아과이니깐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외손녀가 작년에 Harvard 졸업 후에 엄마가 근무하는 Baylor College에 Medical School을 들어갔습니다. 외손자는 Northwestern(자기 아버지가 나온 곳)에 입학해서 Pre med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Chicago 대학을 나와 Financial Fund Manager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손자인 Joshua는 Chicago 에 있는 Loyola대학에서 pre med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등학교에 있는 외손녀, 친손녀도 나중에 Medical School

에 간다고 합니다. 이증자 권사가 항상 손자, 손녀들한테 하는 말이 교회 다니고, 의사되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선교를 가서 오지에 어려운 사람, 이웃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식은 많은나, 아내는 지혜가 많습니다. 세상사는 동안에 지혜가 훨씬 중요함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집안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온 저는 앞으로의 남은 일생을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김정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하다가 저의 생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교지 소식

비엔티안에서 멀어질수록 사완나켓에 가까워진다. 라오스 이관택,정유은 선교사

싸바이디!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작년 12월 27일, 저희는 드디어 사완나켓으로 이사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라오스에 대해 알면 알수록, 또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걸림돌들이 눈에 밟혀 용기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일에는 주변을 살피는 눈도 필요했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발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펼쳐내는 상상력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지난 시간 라오스의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지역을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이끄심 덕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만난 곳이 바로 ‘천국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사완나켓’입니다.



이사 하던 날, 이삿짐을 한가득 차에 싣고 한참을 달리던 중 ‘사완나켓’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멀어질수록, 사완나켓에 가까워진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갈릴리에 가까워지는 법이지요. 물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삶의 방식과 태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새로운 것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땅에서 던져진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사완나켓은 우리에게 주어진 갈릴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도 아닌, 비엔티안도 아닌, 사완나켓의 방식으로 주어진 질문 앞에 응답하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길에 앞으로도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완나켓으로 이주했습니다

2023년 6월, 우리는 불발탄 피해지역과 가까운 라오스 중부 사완나켓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하였고, 12월 27일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수도 비엔티안 특별시에서 자동차로 10시간 거리에 위치) 사완나켓주의 인구는 약 1,102,000 명이며 라오스 18개 행정구역 중 1위입니다. (비엔티안 특별시의 인구는 989,000명) 다른 지역과 달리 사완나켓은 농사할 수 있는 평야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한편 도시로 이주하는 비율이 낮고 상급학교 (고등학교 이상) 진학률도 가장 낮습니다. 빈곤율과 불발탄 사고율이 라오스 전체에서 매년 높은 순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완나켓을 주 활동지역으로 선택한 이유

사완나켓 주(州)는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호치민 트레일이 관통했던 지역으로 전쟁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불발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주도(主都)인 까이선 품위한 시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에 있는 세폰 군을 비롯한 동부 산간지역에는 불발탄 피해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중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1902년 스위스 활동가에 의해 설립된 라오스 최초의 공동체(쌍콘공동체)가 남아있는 라오스 7도 7의 성지입니다. (양화진과 같은 활동가묘도 남아있다) 라오스 초기의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술 기록을 남기는 작업 또한 매우 의미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사완나켓주의 주도인 까이선품위한 시는 라오스의 공산혁명 지도자 ‘까이선 품위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992년 그가 사망하자 원래 명칭인 ‘사완나켓’에서 ‘까이선품위한’으로 도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며, 지금도 이 지역 출신들이 정치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더

욱 신중하게 활동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공동체 청년부와 함께 후아판 불발탄 피해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꿈이 있는 공동체 청년부 단기활동팀과 함께 불발탄 피해지역인 후아판주 위앙싸이에 다녀왔습니다. 소수민족 학교와 반나텐 마을에서 불발탄 위험 예방 및 컴퓨터, 미술,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환경개

선, 장학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반나텐 마을 회관에서는 꿈이 있는 공동체에서 10여 년 전에 제작한 영화 <버스>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 순간 기쁨과 열심으로 함께해 주신 팀원 여러분과 한국에서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신 꿈이 있는 공동체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활동 계획과 마음 모을 제목

1. 후아판 불발탄 사고예방 교육: 2024년 1분기 불발탄 사고예방 교육을 3월 4일부터 7일 후아판주 위앙싸이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겪는 위험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씨앙쓰, 나똥, 씨앙루엥, 나년 초등학교에서 진행 예정) 그리고 함께하는 불발탄청 공무원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사완나켓 내 활동 지역 찾기: 지금까지는 라오스 북부 후아판 지역의 불발탄 피해지역에 주로 방문했는데, 앞으로는 사완나켓 내 불발탄 피해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을 방문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3. 사완나켓 교육문화센터: 사완나켓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

습니다. 센터설립을 위한 ‘비자’, ‘법인등록’, ‘토지구매’ 등의 행정적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세요. (특히 사완나켓 내에서의 구체적인 지역 선정을 위해서)

4. 동역자: 사완나켓에서 앞으로 함께 할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완나켓교육 대학교 라오어 교육학과 학생들과 만나 교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라오스에서, 정유은 이관택 드림



GBGM 2024년 선교 신규 지원

금년 3월부터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7명을 새로이 후원합니다.

아래 명단을 확인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Temba Nkomozepi

잠비아에서 농업선교사로 Mujila Falls Agriculture center를 책임지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경북대에서 농업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알아듣고 말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선교사의 선교 사역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3022400/>



2. Cristian Schlick

칠레 출신의 청년선교사로 2년 섬긴 후 장기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법학도 출신 선교사로 현재 남미 지역 Migrant Mission Specialist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고민도 깊고 현재 신학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3022324/>



3. Joy Eva Bohol

필리핀 출신의 이제 막 결혼한 선교사입니다. 청년선교사(GMF) 출신으로 한국 서울 사무실에서 Mission Advocate로 3년 섬긴 후 장기선교사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WCC 에서 Youth Engagement의 Executive로 섬겼습니다. 지금은 유럽지역 Migrant Specialist 섬기고 있습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3021829/>



4. Hannah Reasoner

뉴욕 Annual Conference에 소속되어 있고 5대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 출신 입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3022362/>



5. Dexter Ceballos

필리핀 감리사 출신의 선교사로 현재 몽골 Country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3022705/>



6. Charles Mulemena

잠비아 출신선교사로 현재 Belize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3022034/>



7. Jane Eesley

이번에 새로 예루살렘 Liaison Office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https://umcmmission.org/missionary-bio/eesley-rev-jane-susan/3022718/>



미주 기아대책(KAFHI) 주관 빈곤 아동 결연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라파스입니다. 중남미 지역의 최빈민국중 하나로 빈민지역이 많으며, 교육체계 또한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기아대책기구는 아동결연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100명의 아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여분이 동참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려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1971년에 래리워드(Dr. Larry Ward)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46여 개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과 희망친구 기아대책(KHFI)은 파트너 기관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 리더, 가정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아동 중심 공동체 변혁(CFCT,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이라는 가치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및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해외아동결연 | 교육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적, 지역개발
- 생계지원 | 농림수산 지원, 인력육성, 빈곤층 금융서비스 역량강화, 소득증대
- 교육 | 교육 인프라 지원, 초중고 기초교육, 영유아 교육, 성인 자립교육
- 인도적지원 | 긴급구호, 조기복구, 장기재건, 기후변화대응, 평화구축, 난민지원
- 보건의료 | 보건인프라개선, 식수위생개선, 모자보건
- 영성 | 지역복음화, 역량강화, 지역사회 섬김, 전문인 선교사 지원

진정한 선교 파트너, 희망친구 기아대책

기아대책의 전문성으로 교회의 선교 방향과 적합한 사업을 소개합니다.

비전트립(단기선교)

후원 지역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주일(Hunger Sunday)

교회의 특정한 주일을 정해서 기아대책의 사업을 소개하고 성도들이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선교훈련 프로그램

지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니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선교 세미나를 제공합니다.

① 카이로스 ② 퍼스펙티브스 ③ 단기선교 퍼스펙티브스



FUMC 소식

우크라이나 난민 희망상자 전달


지난 2월 5일(월)부터 9일(금) 김정호 담임목사께서 미주기아대책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님과 함께 폴란드 국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방문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겨울나기 희망상자'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어려운 피난 현실임에도 행복해 하는 아이들을 보며 동행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날 행복 대잔치

한국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설 행복 대잔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운 한복도 차려 입고, 교회 어른들께 새해 인사도 드리고, 덕담과 새뱃 돈도 받으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즐겁게 한국 전통놀이인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금년 사순절 시작인 재의 수요일 저녁 8시 온 가족 한영 합동예배를 드렸습니다.

FEBRUARY 202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유초등부 성경 필사

사순절을 맞이하여 아이들 성경 필사를 진행중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 리더 교육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큐티 리더 교육이 ZOOM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ANNOUNCEMENT

- 2024년 사순절 부활절 예배 안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 25일(월)-30일(토) 6am
부활주일 예배: 3월 31일(주일) 1~5부 예배
(세례 및 입교식 3부)
- 부활주일 세례, 입교자 교육 안내
일시: 3월 10일, 17일, 24일 3부 예배 후
(3주간, 장소: 컨퍼런스 룸)
대상: 영아~성인 등록 교인 중 세례 및 입교 받지 않은 분
신청: 3월 3일(주일)까지 목회실 또는 심데이빗 장로
- 볼리비아 단기 선교 안내
이번 여름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볼리비아 아동 결연을 맺는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
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펼칠 것입니다. 함께하실 분
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8월 19일(월)~23일(금)
대상: EM, 중고등부, 청년부 및 성인
신청 마감: 2024년 3월 24일
문의: 목회실
- 미주 기아대책(KAFHI) 주관 빈곤 아동 결연
볼리비아 도시 빈민 아이들과 후원자 결연 맺기가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자녀 교육 세미나
일시: 3월 10일(주일) 12:00 pm
장소: 교육관 3층 예배실
강사: 담임목사
대상: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 FUMC Youth Discipleship Gatherings - Saturdays
중고등부 제자훈련이 토요일에 열립니다.
- 중보기도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매주 (월)~(금) 새벽기도 후
장소: 1층 새가족실
중보기도 신청함은 1층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복지위원 교육안내
교육내용: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은퇴연금 SSA, 빈곤자
지원 SSI, 노인아파트 등 다양한 복지 내용
교육대상: 교육 내용에 관심있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원하는 분들
교육 일시 및 장소: 목회실 문의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청년예배 YOUNG ADULTS SERVICES

SUN 2:30 pm @소예배실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 유아부(만3세미만)
유치부(만3-4세) / 유치등부(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live/>

새벽예배,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9 am cbsn(www.cbsnewyork.net)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877)
10 pm 단비TV (Spectrum Ch.1487)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12 pm(정오) 단비TV (Spectrum Ch.1487)

토요일 9 p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1 pm/ 9 pm cbsn (www.cbsnewyork.net)

발행인: 김정호

편집: 뉴스레터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